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0월 18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마가복음 9:21,22 / 새찬송가 395 (통일 450) 자비하신 예수여

1.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로 죄와 죄로 인한 악으로 인해 질병과 저주로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를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 미라제블>에서 장 발장은 미리엘 주교에게 은춧대와 함께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생애 처음 느끼는 혼란을 느끼며 숲 속에 주저앉은 장 발장은 어린 굴뚝 청소부 뺨뺨 제르베를 만납니다.

소년은 실수로 은화를 떨어뜨리고 그 은화가 장 발장의 발밑으로 굴러가자 장 발장은 은화를 발로 밟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울며 애원했지만 장 발장은 오히려 그를 위협하여 쫓아냈습니다. 소년이 떠난 후 발을 들어 뺏은 은화를 보는 순간 그 은화의 은빛을 보고 장 발장은 은춧대의 은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 발장은 방금 전 미리엘 주교에게 받은 용서와 자비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장 발장은 큰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소년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통해 그는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었고 그날 밤 장 발장은 주교의 집으로 돌아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장 발장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우리 인생이 불쌍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쌍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악 때문입니다. 이 악은 죄로 인해 생겼으며 이 죄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즉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마귀의 유혹과 관계하는 것입니다(약1:13-15).

욕심은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 유혹하고 죄짓게 하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막9:21,22).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더불어 반드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3.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밖에 없을까요

욕심은 우리 눈을 멀게 하여 사리분별을 못하게 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하고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욕심과 마귀의 합작품입니다.

또 욕심은 인간이 정상적인 감정과 의지로 살지 못하게 하여 분노와 미움, 불안이나 집착을 가져오고 무기력 상태나 괴이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이유는 우리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파멸에 떨어질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도 모든 종류의 정욕과 욕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갈5:24).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죄를 대체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의지인 반면 죄를 낳는 욕심을 대체하는 것은 성령의 꿈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훔쳐 내면서 우리 욕심을 통해 미래를 파멸로 이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마귀의 훔쳐내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미래에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꿈과 비전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나의 욕심입니까 성령의 꿈과 비전입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의 꿈과 비전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